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① 제직회: 다음 주 1부 예배 후 제직회가 있습니다.

② 모임: 1부 예배 후 인도자, 공동체장 연합 모임이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③ 기도회: 화요기도회가 2월 8일 7시 30분에 Duke Institute에서 있습니다. (12-14 Huron street, Takapuna)

④ 월례회: 부부선교회, 1남선교회, 4여선교회 각각 정해진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⑤ 건축위원: 1부 예배 후 계수실에서 있습니다.

⑥ 시작: 오늘부터 예배 전 중보기도가 정해진 자리에서 시작 됩니다.

⑦ 참고: 매일 게재되는 교회 일지를 참고하여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⑧ 발간: 2011년 교회 요람이 발간 되었습니다.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국내 선교지

▷ City Mission 섬김
▷ 밀알장애우 봉사



2월 교회일지

직분자교육:

2월 2일 (수요일)

공동체장 인도자모임:

2월 6일 (주일)

제직회:

2월 13일 (주일)

이삭줍기:

2월 27일 (주일)

교우 소식

① 이사: 박양규(송윤정) 집사

Nelson (남선)

2월 예배담당 안내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6일	고성일	이수원	강동호	추미선/이기중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최봉수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3일	박덕철	임병숙	경덕현	추미선/이기중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최봉수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0일	박병민	방명아	구미희	추미선/이기중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최봉수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7일	이동술	원미경	김경미	추미선/이기중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최봉수	정희자/한상순/김제연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한해가 되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2. 영, 육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자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3.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풍성하도록
4.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박해가 심한 이란의 개종자들이 주님을 위해 받는 능욕을 합당하게 여기며 믿음을 지키도록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최재학,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협동장로	: 유승재
지휘	: 신경화
반주	: 박양규, 유지선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2월 6일

주보 13권 6호

www.calvary.org.nz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68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반주자
전주		반주자
예배의 부름	시편 118:24-25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9장 (구 53장)	다함께
*성서교독	12 시편19편 (구 8)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84장 (구 206장)	다함께
대표기도		고성일집사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6:1-5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짐은 서로져야 합니다	이태한목사
찬송	505장 (구 268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박덕철 집사 2월 20일: 박병민 집사

지난주일통계 | 1부 126명 2부 8명 학생부 24명 아동부 11명 유아부 16명 총계185명

성서교독 12: 시편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와 올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와 올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상식

성령과 바람의 관계

요즘 젊은이들은 유사한 발음의 단어들을 활용하여 농담하기를 즐긴다. 밤중에 강도가 들어와서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는 사오정에게 "닥쳐!" 하고 협박을 했더니 사오정이 마당으로 뛰어나가 닭을 치기 시작했다는 재담 유의 말장난이다. 이것을 영어권에서는 '펀'(pun)이라고 한다. '펀'은 전달되는 교훈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며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즐겨 사용한다. 성경도 종종 이런 단어의 유희를 즐긴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와 중생(重生)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니고데모에게는 구약에서 쉽게 찾아지지 않는 '거듭난다'는 개념이 생소했던 모양이다. 의아해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육체적인 재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신생(新生)을 뜻했다는 것을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약간의 말장난(pun)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요 3:8).

희랍어가 아닌 현대의 타 언어로 이 구절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예수께서 왜 성령을 하필 바람에 비유했는지 모르고 넘어가기 쉽다. 실제로 예수의 말씀을 잘 새겨보면 성령의 역사에는 바람의 움직임과 유사한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바람'의 개념이 사용된 것은 내용의 유사성 뿐 아니라 발음의 동일성 때문이기도 하다.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현대 성경의 '바람'과 '성령'에 사용된 단어가 동일하게 '프누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본문을 읽으면, "프누마가 임의로 불매... 알지 못하나니 프누마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가 된다. 희랍어의 '프누마'는 영, 바람, 숨결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펀'이다. 그렇다. 이것은 예수의 어록에 담겨있는 말의 지혜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대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개그맨의 말장난에 넘어가 빠져 자기도 모르게 암기하고 흉내내던 것처럼 무척이나 재미있게 읽어 그 내용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 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다. 바람이 그렇듯이 말이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 주변에서 엄연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바람은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 자기의 주권으로 자유롭게 운행한다. 우리는 바람을 가둘 수 없다. 바람이 우리를 스쳐갈 뿐이다. 성령도 그렇게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권적 자유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거듭남을 체험하게 한다. 당신에게는 언제 그 프누마가 불어와 당신의 영혼에 거룩하고 신선한 프누마가 되었는가?

- 유승원 교수 -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찬양	심창진목사	
기도	이수원권사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6:1-5	인도자
설교	짐은 서로져야 합니다	이태한목사
찬송	505장 (구 268장)	다함께
광고		인도자
축도		이태한목사

다음주 기도: 임병숙권사

수요예배

오후7시30분		
찬양	수요찬양단	다함께
기도		박재용장로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19:1-10	인도자
설교	할렐루야	이태한목사
찬송	405장 (구 458장)	다함께
광고		인도자
주기도		다함께

수요예찬 기도: 이중후집사
다음 수요기도: 김정옥집사